



제92장 라 일

메카에서 계시된 21절로 인간의 노력에 의한 인생 그리고 최후에는 축복받은 천국이거나 아니면 저주받은 지옥이 최후의 삶이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본 장은 어두워지는 밤과 빛을 비추이는 낮과 그리고 남녀를 창조하고 모든 것에 자웅을 두어 창조하신 주님에 대한 맹세를 시작으로,

행복의 길과 불행의 길, 의로운 것과 불신, 천국의 백성들과 지옥의 백성들에 관하여 이야기 한 후 재물을 사용하되 하나님께 거역하여 사용하는 사용하는 재물은 무활의 날 그에게는 아무런 유용함도 주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후 메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벌과 응벌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선지자를 거역한 자에게는 타오르는 불지옥의 응벌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 한 후

믿는 사람들의 모범 즉 재산을 사용하되 선을 위하여 사용하며 스스로를 정화하는 이 모범은 하나님의 벌에서 제외된다는 교훈을 제시하면서 종이었던 「빌랄」을 해방시켜준 「아부 바크르 시디끼」의 모범을 예로 들면서 본 장을 끝맺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제1절의, “어두어지는 밤을 두고 맹세하사”에서 언급된 「라일」의 어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제 92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어두워지는 밤을 두고 맹세하사
2. 빛을 비추이는 낮을 두고 맹세하며
3. 남녀를 창조하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나니
4. 실로 너희들의 행위는 여러가지라
5. 자선을 베풀고 두려워 하며¹⁾
6. 진리를 증언하는 자를 위해¹⁾
7. 하나님은 그가 축복으로 가는 길을 쉽게 하여 주시노라
8. 그러나 인색하고 자기 자신이 참만하다고 생각하며
9. 진리를 거역하는자¹⁾
10. 하나님은 그가 불행으로 가는 길을 쉽게 하리니
11. 그가 지옥으로 향할 때는 그의 재산이 그를 유익하게 못하나라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وَاللَّيْلِ إِذَا يَغْشَى ۝

وَالنَّهَارِ إِذَا تَجَلَّى ۝

وَمَا خَلَقَ الذَّكَرَ وَالْأُنثَى ۝

إِنْ سَعَيْكُمْ لَشِقَى ۝

فَأَمَّا مَنْ آعطَى وَآتَقَى ۝

وَصَدَّقَ بِالْحُسْنَى ۝

فَسَنِّيئِرُهُ لِلْيُسْرَى ۝

وَأَمَّا مَنْ بَخِلَ وَاسْتَغْنَى ۝

وَكَذَّبَ بِالْحُسْنَى ۝

فَسَنِّيئِرُهُ لِلْعُسْرَى ۝

وَمَا يُغْنِي عَنْهُ مَالُهُ إِذَا تَرَدَّى ۝

5-1) 하나님께서 자선을 베풀라 명령한 대로 자선을 베풀며 모든 일 하나 하나에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것(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646/3).

6-1) 믿음으로 의로운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한 천국을 확증하는 것.

9-1) 천국을 거역하는 자

12.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이라

إِنَّ عَلَيْنَا لَلْهُدَىٰ ۝١٢

13. 내세와 현세도 그분께 있노라

وَأَنَّ لَنَا الْآخِرَةَ وَالْأُولَىٰ ۝١٣

14. 그러므로 내가¹⁾ 너희에게 격
렬하게 타오르는 불지옥을 경고하
나니

فَأَذِّنْ لَكُمْ نَارًا تَلْقَىٰ ۝١٤

15. 가장 불행한 자들만이 그곳
에 이르게 되니라

لِيَصِلَهَا إِلَّا الْأَشْقَىٰ ۝١٥

16. 그는 바로 진리를 거역하고
외면하는 자라

الَّذِي كَذَّبَ وَتَوَلَّىٰ ۝١٦

17.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그곳으로부터 제외 되거늘

وَسَيَجْزِيهَا الْبَرُّ ۝١٧

18. 이들은 그들의 재산을 바치
며 스스로를 순결케 하사

الَّذِي يُؤْتِي مَالَهُ يَتَزَكَّىٰ ۝١٨

19. 그가 베푸는 은혜에 대한 보상
을 그의 마음속에 갖지 아니하고¹⁾

وَمَا لِأَحَدٍ عِنْدَهُ مِنْ نِعْمَةٍ تُجْزَىٰ ۝١٩

20. 오직 가장 위에 계시는 주님
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
진 자들로

إِلَّا الْبَتَّاءَ وَجِبَّ رَيْبِهِ الْأَعْلَىٰ ۝٢٠

21. 이들은 곧 완전한 기쁨을 누
리게 되리라

وَلَسَوْفَ يَرْضَىٰ ۝٢١

14-1) 하나님

19-1) 이 절은 아부 바크르 시디끼에 관하여 계시된 절로 전하여지고 있다. 「빌랄」은 「움미야 이븐 칼라프」의 노예였다. 그런데 빌랄이 이슬람에 귀의하였다고 하여 주인은 빌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는데 가장 뜨거운 대낮에 밖으로 쫓아내어 메카 바뜨하 지역에서 등을 땅에 대고 얼굴은 하늘로 향하게 하여 뜨거운 열사에 시달리게 하는가 하면 큰 바위를 가슴에 놓고서 “이러한 벌을 내가 죽을때까지 아니면 무함마드를 불신할 때까지 계속되리라”하였다. 이러한 상태에 있던 빌랄은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라고 말을 하였다. 이때 아부 바크르 시디끼가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불신자들은 그때까지도 그에게 그러한 박해를 하고 있었다. 이때 아부 바크르는 주인 우미야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오?”라고 하자 그는 “당신이 보다시피 당신이 그로 하여금 나에게 피해를 주도록 하였소”라고 하자 아부 바크르는 빌랄을 사서 그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에 불신자들이 말하길, “실로 아부 바크르가 빌랄을 해방시킨 것은 그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하자 본 절이 계시된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하쉬야 알싸위 알라 알잘랄라인 326/4 또는 타프씨르 알카-진 256/4).